



스위스 웨딩 포토.

허니문 인생샷

고성의 정원부터 옥빛 호수 선착장까지

알프스 산부터 살레 마을까지

도심 골목부터 빙하 동굴까지

스위스 사람들 허니문 포토처럼 우리도 한 번

스위스 웨딩 포토 전문가 의뢰도 가능

스위스는 유럽 부유층에게 결혼식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객들을 모두 초대해 웨딩 전후로 특별한 이벤트를 갖기도 합니다. 유람선이나 기차 칸을 빌려 특별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고성의 정원에서 특별한 결혼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웨딩 마치를 올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신혼여행을 떠나 웨딩 사진을 남겨 보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감탄스러운 풍경이 평생 간직할 추억의 배경이 되어주고, 야자수가 즐비한 호숫가 고성부터 만년설에 파묻힌 산장이나 포도밭 저택, 혹은 로맨틱한 호텔의 스타일리쉬한 정원까지 다양한 포토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위스 커플들이 웨딩 포토를 위해 즐겨 찾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삼각대를 준비하면 더 완벽한 촬영을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스위스 커플들이 이 중차대한 포토를 선뜻 맡기는 웨딩 전문 포토그래퍼를 섭외하고 싶다면, 개별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웨딩 전문 포토 업체: <https://www.myswitzerland.com/ko/experiences/weddings-in-switzerland/wedding-photography-and-videography/>

1. 루체른 호수 지역(Lake Luzern Region)

1) 유람선

스위스 사람들에게 봄부터 가을까지는 선상 웨딩이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루체른 유람선에서는 옥빛 호수와 주변으로 펼쳐지는 알프스 산과 아기자기한 호반 마을이 풍경 안에 가득 담겨 무척 스위스다운 배경을 보장해 줍니다. 유람선 위도 좋지만, 유람선을 배경으로 선착장에서 사진을 찍어봐도 좋습니다.

2) 산

루체른 주변으로 펼쳐진 알프스 산은 특별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티틀리스(Titlis) 산 중턱에는 트뤼프제(Trübsee)라는 산정호수가 있는데, 인기 있는 웨딩 포토로 스팟다. 필라투스(Pilatus) 산은 좀 더 원경의 호수를 사진에 담을 수 있습니다.

3) 언덕

루체른 호수 주변으로는 언덕도 많은데, 빌라 호네그(Villa Honegg)는 럭셔리 허니문 호텔로 인기인데, 호수가 펼쳐진 초록 들녘이 펼쳐집니다. 경치 자체가 감탄스럽습니다. 뷔르겐슈톡(Bürgenstock) 산 위 작은 마을, 엔네트뷔르겐(Ennetbürgen)에 위치한 수페리어 5성급 호텔, 빌라 호네그의 노천 스파 풀에서도 루체른 호수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저녁 무렵의 오렌지빛 노을이 알프스 파노라마 위로 사뿐히 내려앉으며 로맨틱한 분위기가 몽실몽실 피어오릅니다. 이보다 더 낭만적인 정취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니문 호텔로 인기인 이유입니다.



2. 융프라우 지역(Jungfrau Region)

1) 인터라켄(Interlaken)

인터라켄 주변에는 초록 들판이 펼쳐져 있고, 그 너머로 만년설 봉우리가 펼쳐진다. 선착장으로 나가면 옥빛 호수가 있는데, 한쪽으로는 툰(Thun) 호수가, 다른 한쪽으로는 브리엔츠(Brienzi) 호수가 펼쳐진다. 호반 산책로를 따라 걸다가 마음에 드는 스팟을 골라보면 된다.

2) 툰(Thun)

인터라켄에서 이어지는 툰 호수 끝자락까지 기차나 유람선을 타고 갈 수 있다. 툰 호수 끝자락에 있는 마을, 툰에는 같은 이름의 고성(Thun Castle)이 있어 웨딩 촬영으로 인기가 있다. 툰 성이나 유람선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다.

3) 지그리스빌(Sigriswil)

인터라켄에서 툰 호수 쪽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자그마한 마을, 지그리스빌에는 파노라마 다리가 있는데, 베르네제 알프스(Bernese Alps)와 툰 호수의 전망을 선사한다. 깊은 계곡 위로 연결된 다리 위나 근처 언덕에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이 다리를 통해 56km 에 이르는 파노라마 트레일이 이어진다.

4) 기스바흐(Giessbach)

인터라켄에서 브리엔츠 호수 끝자락 즈음에 나오는 호숫가 마을 브리엔츠에는 마치 동화 속의 성처럼 보이는 유서 깊은 그랜드호텔 기스바흐(Grandhotel Giessbach)가 있다. 웨딩 호텔로 인기 있는 장소인 만큼, 허니문들에게 추천되는 호텔이다. 자연물로 만들어진 풀장과 주변의 화려한 꽃들로 꾸며진 정원이 아름다워, 웨딩 포토에 완벽한 배경이 되어준다. 알프스 산, 호수가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호텔로, 개인 보트 선착장과 호텔까지 오르는 귀여운 퓨니쿨러가 감상적인 여정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이 퓨니쿨러를 타면 브리엔츠 호수의 명소, 기스바흐 폭포까지 갈 수 있다. 포효하는 폭포는 500 미터 높이에서 수없이 많은 다른 단계를 지나 호수로 떨어진다.

5) 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

1912년 이래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3454m)에 자리한 기차역, 융프라우요흐까지 철도가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지만, 그 정상에서 내려다본 빙하의 세계는 감탄을 자아낸다. 아이거(Eiger), 뮌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 봉우리가 펼쳐지고, 그 아래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알레취(Aletsch) 빙하가 신비스러운 빛깔을 뽐내며 풍경은 즐길 수 있다. 만년설 한가운데에서 파노라마 사진을 남겨도 좋지만, 융프라우요흐 정상에 있는 빙하 속에서도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정상에 있는 얼음 궁전(Ice Palace) 안에서 신비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다.

3. 체르마트(Zermatt)

체르마트에서는 무엇보다 마테호른(Matterhorn) 봉우리를 배경으로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어 허니문들에게 인기가 있다. 체르마트 역 맞은편에 있는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기차를 타면 리펠알프(Riffelalp)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 호텔 리펠알프 리조트(Hotel Riffelalp Resort)가 있다. 해발고도 2222m 에 있는 리펠알프 리조트에는 마테호른이 큼직하게 등장한다. 근처에는 리펠알프제(Riffelalpsee)라는 산정호수가 있는데, 호수 위로 반사되는 마테호른을 촬영할 수 있다. 이 호텔에서 묵으며 스파와 미식을 즐겨봐도 좋다.



4. 취리히(Zurich)

취리히는 고풍스러운 옛 배경에 패션 감각있는 생기발랄한 젊은이들이 한 데 어울려 독특하고 신선한 조화를 이룬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도시다운 세련된 면모를 갖춘 곳이자, 도시 한복판에서도 자연을 마주할 수 있는 취리히는 골목골목에서, 그리고 호숫가에서 웨딩 포토의 배경을 만날 수 있다. '예술은 미술관이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모토로 도시 전체를 예술의 장으로 만들고 있기도 한 취리히에는 거리의 사인물부터 공공시설까지 세련된 디자인 감각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독특한 쌍둥이 첨탑으로 취리히 상징이 되어주는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 리마트(Limmat) 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다리 위, 호반 산책로도 좋지만, 노을이 질 무렵이나, 야경을 위해 위틀리베르크(Uetliberg) 정상에 오르거나, 위틀리베르크 정상에 있는 호텔, 우토 쿨름(Uto Kulm) 호텔에 묵어봐도 좋다.

5. 발레(Valais) 지역

1) 알레취 빙하 지역(Aletsch Arena)

23킬로미터의 길이, 평균 폭이 1,800미터 그리고 표면 지역이 대략 100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알레취 빙하는 270억 톤의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위스 알프스 융프라우-알레취 지역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지역에 등재되었는데, 이 빙하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묵어가며 신비한 빙하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겨보면 좋다. 리더알프(Riederalp) 및 베티머알프(Bettmeralp)는 알레취 빙하를 따라 형성된 아름다운 마을이다.

2) 호텔 벨베데레(Hotel Belvedere)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스위스의 내밀한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스위스 그랜드 투어(Grand Tour of Switzerland)로 알프스 고갯길을 달리다 풍경 좋은 곳에 내리면 그곳이 바로 최고의 포토 포인트다. 특히 굽이진 고갯길로 유명한 푸어카 패스(Furka Pass)에 있는 호텔 벨베데레(Hotel Belvedere) 앞은 낭만 그 자체다.

3) 라 폴리(La Fouly)

발레 주의 마을, 라 폴리에서는 고산 풍경, 알프스산맥, 때문지 않은 자연, 작고 매력적인 편안한 분위기가 허니문더들을 반갑게 맞이해 준다. 들판과 알프스산맥을 배경으로 탁 트인 촬영을 할 수 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찾아가야 하는 수고가 있지만, 살레 마을의 정겨움을 즐길 수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다.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